

탐방 경향신문불자회

“마음의 펜으로 지상포교 앞장”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일간지 직원불자회인 경향신문불자회(회장 강신철 논설위원). 경향불자회는 불법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삶의 빛깔을 만들어가는 지상인들의 모임이다. 81명의 회원들은 불교의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게 이

경향불자회는 지난 95년 4월16일 북한산 노적사에서 신문사 직원과 가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초대회장 김병락 비상계획부장).

당시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본회는 자체 실행활동은 물론 언론계에서의 불교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 매달 한번 정기법회를 봉행해 온 불자회는 신문사의 근무 여건상 자주 순례법회나 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하지만 회원 각자의 업무에서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펜이 사회를 이끌고 불교를 의화하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포교한다’는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있는 경향불자회는 지난해 6월5일부터 1주일간 비번날을 이용 서울·경기 전역의 지국을 방문해 배달소년들에게 티셔츠를 전달하고 삼지작업을 돕기도 했다. 5월 26일 조계종총무원회로부터 연등축제 정진상을 받기도 한 불자회는 북한동포 및 백혈병어린이 돕기 등의 보시행도 펼칠 예정이다.

강신철회장(48)은 “앞으로 교리 공부와 참선정진을 통해 신정의 힘을 키운 뒤 다른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회원 81명 언론계 불교위상 높여 배달소년 도와...연등축제엔 정진상



◇지난 1일 속리산에서 봉행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법회.

‘산행불심’ 청정국토 가꾼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출범...회장 손현수씨

‘산행과 수행은 하나’라는 명제 아래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모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대한그룹회장)가 정식 출범했다. 전국 10개 지역 16개 불교산악회 회원 1천여명이 지난 1일 속리산 법주사 녹지공원에 모여 창립법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손현수 서울동부불교산악회 회장을 선출했다.

불자들과 관광객 3백여명도 함께 참여해 축하했다. 손현수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불자라면 누구나 산악인이라는 생각 아래 산행을 통해 수행을 증진시키고, 종파 및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산행을 만들어 이땅에서 청정국토를 건설하자”고 다짐했다.

속리산=김재경 기자

◇불교산악인연합회 가입단체

지역	단체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손현수	(02)232-6948~9
	서울금강메아리	김대원	(02)508-5863
	서울불이산악회	조인행	(02)434-7300
부산	부산불교산악회	이준근	(051)464-2020
대구	대구불교산악회	김장근	(053)743-2554
광주	광주불교산악회	이재삼	(062)676-4334
대전	대전불교산악회	지우하	(042)627-9199
강원	속초불교산악회	최상길	(0392)333-7740
경기	성남불교산악회	임선교	(0342)46-3871
경남	안산불교산악회	한계수	(0523)387-2366
	마산불교산악회	최용환	(0551)24-0523
	고성불교산악회	박중용	(0556)72-0100
경북	영주불교산악회	김원호	(0572)33-1533
충북	청주불교산악회	김정길	(0431)53-6941
중앙직할	연신회	유재근	(02)556-0678
	전국장애인복지연합회	나경선	(02)952-4025



◇지난달 11일 경향신문불자회가 두번째로 참여한 제등행렬 장면.

우리 모임에선

서울 구도회 임시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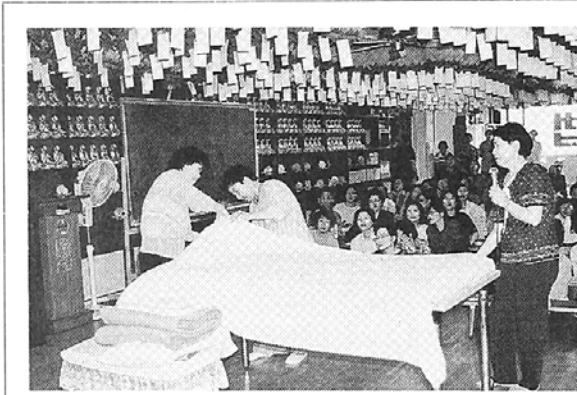
서울구도회(회장 김신재)는 회장선임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21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법당에서 개최했다.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학구열로 구도회를 이끌어 온 현 김신재회장은 일선상의 사정으로 회장소임을 고사했다.

충청교정인련 회보발간

전국 교도관들의 모임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최근 오는 25일 창립 2주년에 앞서 회보(불심)를 창간. 4·6배판 크기 70여쪽 분량의 <불심>은 스님들의 법문, 기초교리, 사찰순례, 신행단체장들의 글, 불자교정인과 가족들의 글과 시로 꾸며져 있다.

부다클럽 양로원 위문

부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문인중) 부녀회(회장 김순애) 회원 30여명은 5일 제주시 제주양로원을 위로 방문, 청소 및 점심공양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부녀회는 매 분기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 제주양로원 원장 김부자씨는 무의탁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0일 부다대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



정부위탁 제기 간병인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5월26~30일 노인구 사천왕사에서 1백여명의 수강생들에게 정부위탁 제기 주부 및 준고령자 간병인 교육을 실시했다.

했던 사회봉사자.

금불련 봉정암 순례법회

전국금불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는 6~8일 2박3일간 설악산 적멸보궁 봉정암에서 합동순례법회를 봉행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철야참선·108배정진과 설악산 산행 및 청소를 실시.

보좌진법우회 청평사 모임

국회보좌진법우회(회장 정병국)는 5월25일 경기 청평사에서 창립후 첫

순례법회를 봉행. 회원 30여명은 저녁예불후 시인인 주지 청화스님의 다담(茶談)과 사백예불 등을 통해 참회와 정진의 발심을 얻었다.

유니텔동호회 보육원 봉사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 김희정)는 15일 경기 시흥에 있는 보육원 송암동산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이날 회원들은 40여명의 원생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보시하고, 학습용품 등을 선물하며 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수리할 예정이다.



교계 중진스님 청와대 불상 친견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사회복지수석)는 5월 31일 교계 중진스님들을 초청, 청와대 불상(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 진각종 불리원장 성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31명이 참석했다. 또한 청불회측에서는 박세일 수석, 배재욱 사정비서관을 비롯 50여명이 동참했다.



석남사 인홍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원로 비구니 인홍스님(석남사 조식) 49재가 1일 석남사 누각에서 스님 1천여명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은 영가법문을 통해 인홍스님을 추모하고 수행력과 유지를 기리며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비구니회 고문 해춘스님, 광우스님(비구니회장) 대령스님(한미음선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대령스님이 분향하고 있다.



키르기즈공 대통령에 명보학위 수여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규)는 3일 중강당에서 키르기즈 공화국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명예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녹원(동국대 이사장) 김인홍(동국대 대학원장) 등 학교관계자와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 서문각(불교방송 사장) 황명수(동국대 총동문회장) 이연숙(여성단체총연합회장) 동국대 학생 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수행결사 선우모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 제2차 수행결사선우모임이 5월31일~6월1일 백암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모임은 지난 2월14일 30여명의 회원들이 1백일 수행을 결사한 이래 서로의 수행담을 나누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결같이 “108배, 염송 등을 통해 수련하는 동안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개화승 이동인 동상 세운다 봉원사에 서울시 공무원불자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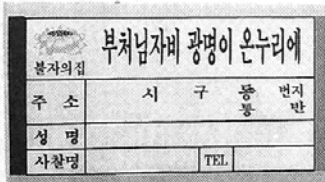
개화승으로 유명한 이동인스님(?~1881)의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의 신행모임인 심월회 조정봉회장(시정 민원조사담당관)은 3일 이동인스님 동상건립을 위한 계획을 진행중이며 내달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봉 회장은 “동상건립에 참여할 단체나 불자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동인스님의 동상은 서울 봉원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봉원사 경내에 세워질 예정이다. 이로써 봉원사에는 봉원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인스님 비(碑)’와 동상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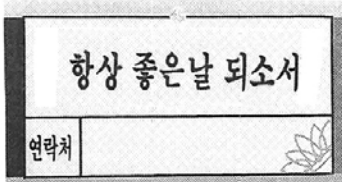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불자가정 문패와 불자 차량 안내판을 제작하였습니다.

■ 불자가정 문패 ■



■ 불자 차량 안내판 ■



● 재질 : 연질 포맥스 (실크인쇄) ● 크기 : 19cm x 11cm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삼보기업의 기획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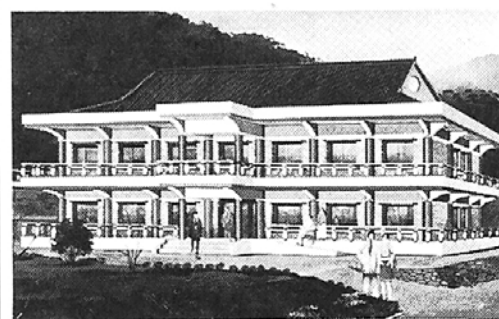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행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법에 맞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불경적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었고 삶에 지치고 사량, 믿음, 자질, 배신, 분노, 열리고 썩어간 인간의 병든 마음과 육신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대의 설계로서 욕망, 휴게실, 독서실 및 차례당사로 무궁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시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함께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담아 성불합시다!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구분 안내문

남·녀 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 제한 없습니다!	
방 1실 인원	1명	※ 小실	※ 일생 수양하실분 가능함
방 1실 인원	2명	※ 中실	※ 연령이 많으신분 우선
방 1실 인원	3명	※ 大실	※ 小中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문의처로 하십시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선착순위	
문의처	본사) 합 천 법륜사 : (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 운 봉, 총무스님 : 손 자 혜  
고 문 : 이 기 우  
회 장 : 이 경 자 합 장  
회 주 : 최 복 남